

테러방지법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사투'



지난 26일 현재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 중이다. 사진은 9번째 발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발언 전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왼쪽부터). 다음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자료를 발언대에 올려놓고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 11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의당 사기호 의원이 처분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막대한 양의 자료를 발언대에 올려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 '국민감시법' 피켓을 올려놓고 발언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전정희 의원, 국민의당 입당할까?

문병호 의원 “문화상·송호창 등과 함께 영입할 것” 원광대 정책자문단 “더민주, 전 의원 공천배제 철회를” 도내 정가 “영입시 또하나의 바람몰이 기폭제” 시각도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공천배제된 이후 수년간 몸담아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국민의당에 입당할지 그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위 20% 컷오프 대상이 된 문화상 송호창 전정희 의원에 대한 영입의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본인들이 국민의당에 입당할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 물밑 작업이 아닌 대놓고 영입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들의 영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내비쳤다. 아직까지 전정희 의원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할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해 입당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정희 의원 원광대 정책자문단 39인 교수일동은 지난 26일 “전정희 의원이 공천 배제 대상자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지마시 사형선고이고 이런 정당이 과연 60년 전통의 민주정당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전 의원을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더민주는 즉각 전정희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 조치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전 의원은 여성이자 초선 국회의원에서 전문가로도 활동하는 전력계통과 원전안전,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4년내내 끈질기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던 인물이다. 또한 2014년 한국입법학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더민주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수상했고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19대 국회의원 종합현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종합현정대상은 전체 국회의원의 상위 25%(75명)에게만 전달됐다. 이런 그를 국민의당에서 떠나갈 이유가 없다는게 정가의 분석이다. 특히 국민의당 입당으로선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의원을 불러들이는 것은 또 하나의 바람몰이 등 기폭제가 될수도 있다는 시각이 많다. 뿐만 아니라 전정희 의원 자신에게도 더민주당의 공천배제가 위기일수도 있지만 탈당과 함께 국민의당 입당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정가 관계자는 “현재 김삼기 등 익산을 예비후보군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전 의원이 이번 국민의당 입당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업그레이드한다면 익산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신광영 기자

“친일인명사전 교육적 활용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도내 각급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의 전면 배치와 교육적 활용을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의 이통과 행적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이 전라북도 각급 학교에 배치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민족적 대응 등으로 학생들의 역사인식이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신광영 기자

도내 의원 평균 후원금 1억4000여만원

더민주 이상직·박민수 의원이 1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도내 11명의 국회의원의 평균 후원금은 1억4,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15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을 보면 이상직(전주 완산을)·박민수(무주·진안·장수·임실) 의원이 각각 1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모였다.

4,900만원으로 랭크됐다. 이어 유성열(정읍) 의원 1억4,700만원, 이춘석(익산갑) 의원 1억4,300만원, 김춘진(고창·부안) 의원 1억2,700만원이 차지했다. 반면 3선 최규성(김제 완주) 의원은 도내 국회의원 들 중 가장 적은 1억700만원을 후원받아 체면을 구겼고 그다음은 강동원(남원순창) 의원 1억2,500만원 순이었다. /고민형 기자

저 총선 출마합니다

장세환 예비후보 “애연가 경제적 부담 완화”

국민의당 장세환 예비후보(사진)는 지난 26일 전형적 서민증세인 담배세를 종전대로 인하여 서민층 애연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경제정책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무리한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한 갑에 매겨지는 세금이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세목이 겹치면서 무려 3,318원에 이르는 바람에 서민층 애연가들에게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강동호 예비후보 “참신한 경제전문가 뽑아야”

국민의당 강동호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전주완산갑·사진)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전복과 전주시의 경제부흥을 이끌어 낼 최고 참신한 경제전문가를 뽑아줄 것을 제안했다. 강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북권에 지금 필요한 인물은 운동권 출신 인사도 아니고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몰사출신도 아닌 경제원리를 제대로 아는 경제전문가”라면서 “오는 4월 총선에서 최고 참신한 경제전문가를 대거 선출해 20대 국회로 보내야 전북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정운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사진)는 지난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귀빈 위주로 진행됐던 기존 행사와 달리 지역 주민들이 행사에 참석해 축하를 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정운천 후보는 “30년 동안 특정 정당이 전북 정치의 주인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전주사람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개소식을 준비했다”면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경쟁하는 정치체제를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양현섭 예비후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환영”

새누리당 양현섭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전주덕진·사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를 환영했다. 양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로서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 습득에 따른 실질적인 자금 확보 및 기술획득 등을 차단하는 것인 만큼 물라릴 수 없는 결정”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생명 줄을 차단해서 붕괴를 촉진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이한수 예비후보, 익산출마 공식화

국민의당 소속으로 4·13 총선에서 익산시갑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진 이한수 예비후보(사진)가 “민생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경제의 문제는 바로 일자리가 없다는데 있다”며 “양질의 고용 보장 일자리 8만개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으며 “익산은 경기규모 전국 4위, 쌀 생산량 전국 3위의 농업도시”라며 “국회의원이 되면 농민을 울에서 감으로 이동시키는 일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박종길 예비후보, 백제문화 보존 협의

박종길 예비후보(익산 을·사진)는 새누리당 전북도당 주최로 익산지역 고도 복원 총선 공약개발을 위한 현장 투어 및 정책 간담회가 최근 익산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백제문화 보존·유성에 대한 현장점검과 정책지원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박 후보는 “백제고도 복원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와 산업의 창조적 융합 문화의 상품화, 문화유산을 통한 창의적 차별화로서 고(高)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 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정부여당 강행 테러방지법 국민 인권 침해하는 악법” 더민주 성은순 예비후보 지적 “국민 향한 테러행위 즉각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성은순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전주덕진·사진)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강행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성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부칙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테러가 의심된다는 매우 자의적인 기준으로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게 돼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후보는 또 “77년 만에 국회에 필리버스터가 등장한 이유와 의원들 발언 시간이 인간 한계를 넘어서는 현 상황을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한다”며 “현재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은 선거구획정안으로 만일 지연되거나 파행된다면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는 특히 “오늘날 전북이 인사당풍과 지역 균형정책 등 국가 차원의 큰 흐름에서 배제되고, 지역 현안도 팍 막혀 있는 것은 현 정권의 잘못과 기성정치인들의 탓”이라며 “이를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에서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면서 지역인들과 눈높이를 함께하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며 “우리지역을 한 번 바꿔보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책임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최규성 의원 “경선후보 토론 적극 동참”

더불어민주당 최규성 의원(사진)은 김춘진 의원이 제안한 경선후보 공개토론회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최규성 의원은 “경선후보 공개토론회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비전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인만큼 지역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이를 위해 지역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경선후보자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전북 최다선 의원까지 맞붙는 당내 경선인 만큼 누구보다 모범적이고 깨끗하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홍행을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총선승리와 대선승리를 견인하겠다”며, “경선후보자 이번을 시작으로 전북도내 다른 지역까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규성 의원 선거구는 김제·완주, 김춘진 의원 선거구는 고창·부안이나 20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김제·부안으로 통합이 확실시 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역 3선 중진의원간의 경선 비매치가 예고돼 전북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김정호 예비후보 희망캠프 개소식

국민의당 김정호 국회의원의 예비후보(사진)의 ‘희망캠프’ 개소식이 완주군 민들과 무주 진안 장수군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완주군 봉동읍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김관영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열 의원, 정경환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정호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면면히 흐르는 호남의 민주정신을 복원에 전북차별을 철폐하고 정치개혁과 정권교체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전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제2의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사회안국화와 불평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북도민들이 김정호 후보와 함께 정치혁명의 위대한 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광영 기자



이영훈 익산시장 예비후보 “익산 소녀상 건립 추진”

국민의당 이영훈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익산 소녀상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익산 소녀상은 미국, 중국, 일본 자매도시에 위안부 할머니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소녀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이다”며 “역사비교세우기는 모든 국민과 정치인들이 동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서, 익산지역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고 익산 소녀상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